

전통한지 제조업체 고용지원 추진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전통한지 계승 위해 3개 업체에 근로자 고용유지 예산 지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진태)이 전통한지 생산업체의 고용지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당은 전통한지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원활한 고용 유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리고 전주시 지원을 받아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당은 전주한지를 생산하는 근로자나 후계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한지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고용한지, 성일한지, 전주전통한지 등 3개 업체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 따라 3개 전통한지 생산업체에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등 총 3천만원의 고용 급여 명목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은 지원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는 그동안 전주 전통한지 계승을 위해 전통한지를 뜨거나, 건조하는 등 한지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인력이다.

전당은 앞서 2021년 전주 전통한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해 온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한지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한지제조업은 '기타 종이 및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K SIC:17129)'으로, 중소기업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한지 생산업체의 고용지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전통한지 제조업체 모습)

업부에서 지정하는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주전통한지 제조업체들은 국제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업체에 해당된다.

김진태 원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한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통한지 제조업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 제14대 강북남 회장 취임

(사)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가 최근 고창 담마북카페에서 제13대 나순희 회장 취임 및 제14대 강북남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강북남 회장은 직전 문인협회 부회장을 지내며 꾸준히 수필 작품을 발표하는 등 지역 문화발전에 힘을 보탰다. 또 수년간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며 예향의 고창 고창의 명성을 드높여왔다.

강북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진문학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발한 문학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문학작품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는 이상인 초대지부장을 시작으로 현재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이며, 고창문학상, 꽃무릇 시화전시, 시낭송회, 고창문학 발간 등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김제문화예술회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2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시공간 문화예술회관과 전시프로그램 제공자를 매칭하고 전시·기획·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전시공간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통

해 시각예술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86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에 오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환경미술전 [리사이클링 아트 플레이]'를 전시할 계획이며 5명의 작가가 폐건축자재·페비닐봉지·재생종이 등으로 만든 15점의 작품으로 참여하게 된다.

작품 해설과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환경문제

에 대한 인식을 예술활동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전시 취지에 맞게 '리사이클링 김제화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색다른 연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성용 김제시 문화홍보추진실장은 "이번 전시는 재활용품을 소재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미술이라는 예술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시민들 스스로 소중한 다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다"며,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다채

17일까지 상반기 수강생 모집

무주문화원 문화학교가 '우리악기로 배우는 민요반주', '수묵화', '문화로 배우는 일본어', '생활한복 만들기', '세상을 누비는 클래식', '생활목공예' 강좌 등을 신설하며 2022년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은 오는 17일(09:00~18:00)까지 본인이 직접 무주문화원 사무국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회원가입 후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며 수강료는 강좌별로 3만 원, 재료·교재비는 강좌별로 별도(개인 부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총 13강좌로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붓을 사용하지 않고 미술재료를 붓고 흘러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플루이드아트(월, 10:00~12:00)'를 비롯해 국악기 체험과 연주, 공연에 도전해보는 '우리악기로 배우는 민요반주(월, 19:00~21:00)'가 미려했으며 '통기타(화, 10:00~12:00)', '수묵화(화, 14:00~16:00)', '서예(화, 14:00~16:00)', '해금(화, 19:00~21:00)', '재봉틀을 이용해 의류리폼을 해보는 '재봉틀 업사이클링(수, 10:00~12:00)', 영화와 드라마를 활용한 문법과 회화로 일본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로 배우는 일본어(수, 19:00~21:00)' 수업도 개설됐다.

이외 힐링 악기로 알려진 칼림바를 배울 수 있는 '칼림바와 함께 하는 음악여행(수, 19:00~21:00)'을 비롯해 나무를 이용해 생활 소품을 만들어보는 '생활 목공예(수, 19:00~21:00)', 식물이나 꽃, 과일, 채소 등을 주제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페인팅 예술 '보타니컬(목, 10:00~12:00)', '생활한복 만들기(목, 19:00~21:00)', '세상을 누비는



클래식(목, 19:00~21:00)'도 진행된다.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은 "문화학교는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로 올해도 군민 선호도와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강좌를 개설했다"며 "수강 후 성취도와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좌 당 수강 인원을 10명으로 하며 거리두기와 발열 여부 확인, 강의실 소독, 출석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욱 팀장은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이 곧 일상 회복의 마중물이라는 생각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상반기 문화학교 개강이 그 시작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심리적 고통이 배가된 군민들의 삶을 윤곽하게 하는데 보다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총 3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무주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연 및 강연 개최, △문화학교 및 주민시네마스 운영 등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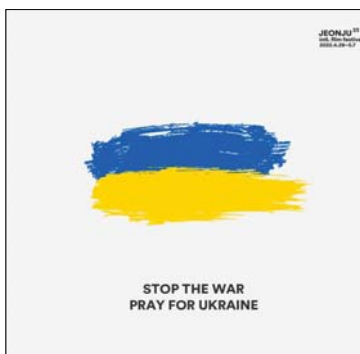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3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지난달 24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탱크를 비롯한 대량 인명 살상 무기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 침해의 아픔을 겪은 바 있는 우리 공동체,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주국제영화제는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종류의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의지, 민주주의의 열망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러시아 현지 영화인, 예술인, 국민의 용기 또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